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복음으로 여는 오바다-

오바다 1:1-4, 히브리서 12:16

정윤돈 목사님

* **옵1:1-4**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야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히12:16**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하신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에 대표적으로 쓰임받는 절대 제자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학업과 현장과 가정과 가문을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라와 가정과 가문에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의미를 전달드리겠다. 청교도 120명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분들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위해서 집, 땅, 고향을 다 버리고 믿음만을 향해 도전했다. 이분들을 청교도, 필그림(Pilgrim)이라고 한다. ‘순례자’라는 뜻이다. 청교도들은 어려움 속에서 남은 자, 순례자가 되었고 결국 정복자가 되었다.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 지금 미국은 없는 게 없는 나라다. 오직 믿음을 향해 도전했던 이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몇 백 년이 지나 미국은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다. 문제도 많지만 청교도신앙이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다. 여러분도 어디든지 청교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란다. 추수감사절이 단지 과일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풍요를 주셔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왔는데,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땅에 정복자, 선교사가 된 것이다. 여러분이 모두 축복을 받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청교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란다. 그게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삶이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다. 에돔에 대한 경고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다. 에돔은 천혜의 요새에 있으면서 교만해졌다.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주님의 재림 때 결국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에돔 족속은 사탄에게 속아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에서가 잘못함으로 에돔 족속은 복음을 방해하고 형제를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자행했다. 사탄에게 속으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시기 바란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다. 에서는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렸다. 여기서 붉은 팔죽은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피와 복음을 의미한다. 에서는 ‘한 그릇의 음식’, 즉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때문에 복음을 팔아버렸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 영적이고 복음적인 것,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같은 소중한 것들에 피해를 주고 쉽게 팔아 버릴 수 있다. 자칫 주일성수의 축복,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 감사, 세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세상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복의 근원, 정복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계산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렵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나의 잘못이고 조상의 잘못이다. 3, 4대까지 이룬다고 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의 성격과 체력과 외모와 여러분이 잘되는 많은 부분이 조상 탓이다. 중독과 정신병과 재앙도 대부분 조상 탓인 게 많다. 탓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소중한 복음을 깨달아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란다. 자살하는 집안은 계속 자살하고 영적문제가 있는 집은 계속 영적문제가 있다. 이 저주가 끈질기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자빠져도 복을 받는다. 에서처럼 장자의 몫을 쉽게 팔아 버리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의 의미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세상적으로나 윤리적,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야곱보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별로 훌륭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을 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다 보인다. 은혜를 받으면 공부도 잘 되어야 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복 받기를 원한다. 에덴동산에서 복 받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에서와 에돔 족속처럼 해서는 안 된다.

오바다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오바다라는 예언자가 기록했다. 오바다의 이름은 ‘여호와와 중’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에서 이후 에돔 족속은 계속 악행을 저지르는 족속이 되었지만 우리는 후대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후대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여러분의 사명이 중요하다. 자녀도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따라가면 복 받는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나쁜 모습만 찾아서 나쁜 길로 가기도 한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큰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보며 성공했다고 고백하고, 둘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상처입고 실패했다고 말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 나의 복이 달라진다.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것만 붙잡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바쁘다. 갈등하는 시간도 아깝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다. 재앙과 저주 속에서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

1. 역사적으로 이어진 에돔 족속의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우리 후대들이 선하게 남을 돕고 축복을 받아야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1) 먼저 에돔 족속의 악행들이다. ① 대표적인 악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길을 막았던 사건이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직선도로를 내달라고 부탁을 한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큰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만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

리아다라고까지 부탁했지만 민수기 20장 20절을 보면 에돔 왕은 모세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민수기 20장 20절을 보면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라고 했다. 인간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지는가. 말할 수 없는 악행이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다.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 한다. 저는 정말 악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적인 힘을 갖지 않으면 현장에서 지거나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다. ② 오바다서에 기록된 에돔의 가장 큰 잘못은 교만이었다. 그들은 야곱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 위에 있는 철옹성만 믿었다. 오바다 1장 3절을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에돔 족속들이 세운 페트라라는 난공불락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다. 길고 좁은 통로를 통해 바위 틈을 지나면 이런 요새가 나온다. 좁은 입구가 거의 1km 가까이 이어진다. 대규모 군대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에돔 족속은 이 요새에 살면서 교만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멸망했다. 청교도의 후손들은 복음 안에서 세계적인 국가를 만들었지만 복음 떠난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다 없어졌다. ③ 에돔 족속들은 이방의 편이 되어 같은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고 조롱하며 약탈하였다. 오바다 1장 11절에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형제임에도 남들이 비난할 때 함께 더 욕하고 비난했다. 형제 민족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었다. 1장 12절에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와 함께 일하던 390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6.25 당시 16개국인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당시 참전했던 용사들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돕고 있다.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감사를 잊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크게 웃고 떠들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남이 잘된다고 함께 박수쳐주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제 은혜 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다. ④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 성으로 들어가서 재산을 약탈하였다. ⑤ 또한 에돔 족속은 도망치는 사람들을 막았고 ⑥ 뿐만 아니라 적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넘기기도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족속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신다.

(2) 다음으로는 이러한 에돔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에돔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징계하시겠다고 오바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서 흑암세력을 징벌하시는 하늘보좌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 ② 에돔을 매우 작고 악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셨다.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으니 살리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다. ③ 심판의 날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소수의 사람들이 지혜로우면 전체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청교도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이 다 신학교로 시작했다.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지혜가 넘쳐야겠다. 미리 보고, 미리 찾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 지혜의 정의는 미리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다. 사탄에게 속아 네피림이 되어버린 에돔 족속은 여러 가지 더럽고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보좌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

(1) 시온산의 회복이다. 오바다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시온산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갈보리산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불신앙, 죄, 사탄의 문제를 깨끗하고 확실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지금 즉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믿고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2) 아브라함과 야곱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다. 오바다서 1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야곱 족속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인들은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4차 산업, 인공지능, 미디어, 메타버스시대를 이끌어가는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의 응답도 실현해 갈 것이다. 여러분이 다 선교현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 담임목사는 여러분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선교현장에 가는 것이다. 곳곳에 사실적인 치유의 센터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야겠다.

(3) 빛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오바다 1장 18절에는 “야곱 족속은 불이 되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빛의 경제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 빛의 경제를 받아 모든 나라와 족속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란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램넛들은 237나라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치유와 서밋의 리더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부족하고 Nobody, Nothing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후대를 Everybody, Everything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러한 응답을 받은 인물들이 7명의 램넛들이다. 이 응답과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과 후대들에게 있을 줄 믿는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기도문 중 7여정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7여정 7가지는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이다.

① 성삼위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한 구원의 비밀이고 감사의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 ②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그리고 10가지 발판이다. 우리의 신앙이 성부, 성자, 성령, 성경, 교회, 선교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살려야 한다. 이게 우리의 발판이다. ④ 5확신. 누구보다도 확실한 복음과 구원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향한 램넛과 중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⑤ 9가지 흐름. 인간관계와 학문과 모든 분야에서 9포인트를 계속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⑥ 그리고 62가지 30년 받은 훈련들을 사실적으로 교회를 통해 세팅해야 한다. ⑦ 결국은 전 세계 곳곳에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야 한다. 이게 여러분에게 절대언약이다.

끝으로 형제와 가족과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돕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237나라 5천 종족에게 증거하여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해 에돔 족속보다도 더 못하지만 이 말세지말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과 이정표를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말세지말의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